



경제통통



FOCUS

- 동대문 상권 '중국산→한국산 둔갑' 유명브랜드 짝퉁 퇴출

ZOOM IN

-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 키우는 7단계 맞춤 지원
- 330년 역사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서울텃밭' 문 열어

HOT ISSUE

- 세종대로 횡단보도가 서울 365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
- '도시문제 해결하는 30시간의 열정' 해커톤 열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고태경 kokaekyung@seoul.go.kr

FOCUS | 01

동대문 상권 '중국산→한국산 둔갑' 유명브랜드 짝퉁 퇴출

서울시가 국내 제조업, 특히 동대문 패션산업의 일자리를 지켜내기 위해 불법 공산품 퇴출에 나선다. 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의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세탁행위
상시모니터링 등
감시단속 체계강화,
관광중심지 중심
지속 단속**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세탁 행위를 6월부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가 함께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감시·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 공산품 근절을 위한 원년 선포식'을 통해 서울시는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복제 제품에 대한 단속 강화 ▲상인들은 건전한 상거래 조성을 위해 불법 공산품 유통 근절 ▲소비자 단체는 캠페인 및 지속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을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축된 민·관 합동체계(7개 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공산품 안전품질 표시
정보은행 전국 최초
구축, 같은 원단은
검사시간과
비용 절감 가능**

또한,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품질(KC) 표시 정보은행'(이하 '정보은행')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6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의류 원단은 공산품안전관리(☞, Korea Certification) 제도('10. 1. 1)에 따라 안전성 검사(안전·품질표시 검사)에 합격한 원단만을 유통할 수 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과 검사시간, 비용 부담 등으로 KC 표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시스템에 등록·공유되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검사시간(평균 5일)과 비용(평균 9~1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정보은행에 원단 안전기준 검사를 등록하면 검사비용의 절반을 시(30%)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0%)이 부담한다.

서울시, 유망 중소기업 투자유치 역량 키우는 7단계 맞춤 지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유망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컨설팅과 IR(Investor Relations) 등을 지원하는 총 7단계로 구성된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세미나 → 투자유치
역량강화 교육 →
컨설팅 → 국내/외 IR
→ 투자협상 등
7단계 지원

'투자유치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①투자유치 세미나 ②투자유치 역량강화 전문교육 ③기업별 IR컨설팅 ④국내 투자상담회(IR) ⑤해외진출 컨설팅 ⑥해외 투자상담회(IR) ⑦투자협상 지원 등 7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6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기업별 IR 컨설팅'은 전직 벤처캐피털리스트 등 투자금융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실제 방문해 상황을 진단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재무추정,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 IR자료 작성 지원 등 기업 현황에 가장 필요한 분야를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국내·외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회사를 소개하고 투자를 제안하는 IR은 행사성 투자설명회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자기관과의 사전접촉을 통해 투자기관이 관심을 표명한 기업과 해당 투자기관 간 1:1 개별상담 방식으로 진행해 투자유치 성사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IR 이후에도 투자조건 협상 자문 및 계약서 감수 등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투자상담회(IR)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중국)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해외 IR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해외진출 컨설팅'을 추가로 제공하며,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가 중국시장 교육과 진출 전략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중국 투자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IR 피칭스킬도 교육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프로그램이 기업의 역량강화와 글로벌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작년보다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한 만큼 평소 자금조달에 대해 어렵고 막연하게만 느끼던 중소·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들이 투자유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필요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ZOOM IN | 02

330년 역사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서울텃밭' 문 열어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서울텃밭'이 조성된다. 330여 년 전인 루이 14세 시기에 조성된 베르사유 왕실 채원은 9ha 면적에 400여 종의 과일과 채소, 꽃, 허브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프랑스 고급전문조경사 양성기관인 베르사유 국립조경학교가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는 한·불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베르사유 국립조경학교(학교장: Vincent Piveteau)와 '서울텃밭'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작물을 파종하여 6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서울텃밭'은 베르사유 왕실 채원 정원사가 직접 관리하며 '서울텃밭'을 소개하는 안내 간판과 작물 표지판도 한국어와 불어로 표기하여 설치된다.

**2020년까지 운영,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콩을 주 재배 작물로
선정해 개성과
의미 더해**

'서울텃밭'은 60m² 규모에 2020년까지 5년간 운영되는데, 2016년 유엔이 정한 '세계 콩의 해'를 기념하여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콩(백태, 서리태)을 주 재배 작물로 선정하였고, 그 외 재배 작물은 우리 텃밭에서 주로 재배하는 엽채류(상추, 썩갓, 열무 등) 대신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지만 작물 고유의 특색이 쉽게 드러나고, 수려한 색감으로 미적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 있는 작물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주요 재배작물은 콩, 목화, 메밀, 수수, 도라지, 당귀, 부추, 배추, 무이며 '서울텃밭' 둘레에는 우리 정서와 친근한 경관 작물인 봉선화를 파종하여 한국의미를 표현하였다. 올해 일년생 작물재배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다년생 작물인 머루, 다래 등과 수생식물인 연근, 왕골 등 재배작물을 다양화할 계획이며, 텃밭음악회, 수확 농산물 나눔행사 등을 할 예정이다.

**2012년 도시농업
원년 선포 3년만에
도시농업 면적을
네 배 이상 늘리고
생태계 회복 노력**

서울시는 2012년 6월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옥상텃밭, 학교농장, 상자텃밭 등 도시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농업 면적을 네 배 이상(29ha → 141ha) 늘렸으며, '서울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여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유서 깊은 베르사유 왕실 채원에 조성된 '서울텃밭'이 서울 도시농업을 알리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세종대로 횡단보도가 서울 365 패션쇼 런웨이로 변신

세종대로 신청사와 시의회 건물 사이에 신설된 횡단보도가 서울 365 패션쇼의 런웨이로 바뀐다. 모델을 꿈꾸는 일반인 모델 30명은 이날 장광효, 명유석, 홍혜진, 권문수 등 서울패션위크 참가 디자이너의 의상을 입고 런웨이에 올랐다.

3색 신호등 모티브로 신설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40초간 횡단보도 런웨이

서울시는 차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신설된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신호 40초간 ‘횡단보도 런웨이’를 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이 런웨이 무대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색 패션쇼를 6월 2일(목) 30분간 진행하였다.

이번 패션쇼의 모티브는 ‘3색 신호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장광효, 명유석, 홍혜진, 권문수 등 4인의 디자이너가 동참해 ‘걷는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서울’을 알리고, 동시에 교통안전을 강조했다. 횡단보도를 런웨이로 삼아 진행되는 이번 패션쇼는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40초간의 보행신호 시에만 진행되었다.

신진디자이너에게는 무대를, 무대 꿈꾸는 모델 지망생에게는 무대 경험 선사하는 패션쇼

특히 이번 패션쇼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미취업 모델지망생들이 ‘서울 365 패션모델’ 선발을 계기로 모델 교육과정을 통해 런웨이 무대에 서게 되는 ‘전문 모델을 꿈꾸는 모델 지망생들의 꿈의 무대’이기도 하다. 현재 1기 모델 참가자 중에는 30대 중반인 두 아이의 아버지, 법대 졸업생, 8년 경력의 힙합댄서, 서울대 홍보모델 출신 등 이색 경력의 소유자들이 패션모델의 꿈을 위해 도전하고 있다.

신진디자이너와 모델 지망생에게는 무대를, 시민에게는 문화를 선사하는 ‘서울 365 패션쇼’는 횡단보도 패션쇼와 같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와 패션을 융합한 복합적인 문화 콘텐츠인 만큼 앞으로 서울시 곳곳에서 다양한 콘셉트로 패션쇼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HOT ISSUE | 02

‘도시문제 해결하는 30시간의 열정’ 해커톤 열려

아이디어와 협업으로 복지, 환경, 문화관광, 건강, 교통 등 각 분야 서울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이 지성을 모으는 ‘해커톤’이 열린다.

※ 해커톤(Hackathon)이란 ‘해커’와 ‘마라톤’의 합성어로, 정해진 시간 동안 특정한 주제에 대해 팀을 구성하여 아이디어부터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대회를 뜻한다.

**무박 2일간 진행,
메이커톤과 아이디어톤
두 분야로 개최해
아이디어+기업 제품
사업화 연계**

해커톤은 6월 25일~26일 무박 2일 동안 서울 상암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진행되며, 도시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신청자 중 사전심사를 통해 메이커톤(MAKE-A-THON) 40팀과 아이디어톤(IDE-A-THON) 60팀, 총 400명을 선정해 약 2주간 사전 맞춤형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번 해커톤은 메이커톤(프로토타입 제작)과 아이디어톤(기술기반 실현 가능한 신제품, 신서비스 제안)의 두 분야로 개최되며, 시민들이 제안한 실현 가능한 기술개발을 토대로 실제 기업의 제품화 및 사업화 지원으로 연계한다.

**서울거주 외국인 포함
시민 400명
아이디어와 R&D 접목
‘서울도시문제’ 해법
함께 찾을 것**

이번 해커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00명의 시민 아이디어와 R&D를 접목하는 첫 사례인만큼 교통정체, 층간소음, 미세먼지 등 서울의 도시문제의 해법을 찾고 기업의 사업화와 연계하는 등 도출과제를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이커톤 수상팀에게는 서울형 R&D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최대 5점) 및 국내특허등록 지원의 특전(대상)과 사전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과 개발지원이 제공되며, 외국인 다국적팀 메이커톤 수상팀에게는 창업비자 필수점수 반영 및 특허등록 지원(대상)의 특전이 주어진다.

